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석사학위논문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 전공
이 지 선

미술학석사학위논문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 전공
이 지 선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차 동 하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 전공
이 지 선

이지선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2월

위 원 장 김 성 희 (인)
부위원장 신 하 순 (인)
위 원 김 형 숙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작품 창작의 동기와 주제 설정의 계기를 밝히고, 작품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재료 기법 등을 분석 정리한 창작 작품 연구 논문이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크게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들이란,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본으로 야기되어진다. 여러 형태의 대인관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성공의 척도이며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여겨진다. 각기 다른 개성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앞서 언급한 관계들은 구성원들 간의 도합으로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관계들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권력과 자유의 행위들은 세상을 이미 '지구촌'이라고 부를 만큼 좁아진 현 상황에 다양한 문명의 충돌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그들 사이에 감정이 메말라 내면적 소통이 단절되어지고 심리적 고독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일상 속 허무함마저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인류 사회에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삶의 충돌'까지 극단적 형태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난다. 자연적 재해에서부터 극악무도한 다양한 사례의 현대 사회 문제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빈번히 발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본인은 꿈꿔보기 시작했다. 상상 속에서나마 이상향적인 공간을 실현해 나가기에 앞서, 본인은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인간 관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느꼈고, '대인관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작업

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상적 모습의 사회를 염원하며 위의 성찰 과정을 통해, 본인은 인류와 시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모두가 평화롭고 발전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하였다. 궁극적으로 본인은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통시적으로는 이상적 관계들의 집합체인 '유토피아적 세계'를 창출 해내야함을 인지하게 된다. '행복'이라는 감정의 종점지인 유토피아의 건설을 위해 그 시작점으로 '이상적 인간관계 맺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 나아가 여러 관계들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시대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인은 작업 연구를 통해 오늘날 인간관계란 분리된 개체가 아닌 유기적 관계의 산물임을 강조하였으며, 본인이 갈망하는 이상적 관계들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맥을 디자인한 공간 지향 의식 역시 표현하였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자연 사조를 기존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과 접목시켜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보았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희망하는 존재로서 존중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나 모두가 한번쯤은 꿈꿔 보았을 법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본인은 창출해보고자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의 '인간(人間)'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관계(關係)'의 의미를 포함한다. 본인은 내면적 소통이 가능한 관계들을 이상적 인간관계로 여겼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 관계들을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에 삶의 모습이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인의 유토피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등의 형식의 면을 떠나, 인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내면적으로 서로 감

정을 공유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며, 타인과 서로 의지하며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공존하는 삶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평화로운 상태는 없을 것 이다. 이렇게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 과정은 본인으로 하여금 오늘날 인간관계들 사이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 이상향을 발견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Ⅰ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내용과 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인간관계의 정의와 그 다양한 형태를 서술하였다. 전통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선진 연구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계는 그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분석하고자한다. 인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태도들이 그러면 인간관계 형성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를 앞선 연구 자료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염려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피해 이상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이상의 공간인 '유토피아적 상상'에 입각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Ⅳ장에서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유토피아'의 형상 표현을 다루었다. 제 1절에서는 동양의 자연관을 서술하며 '낙원(樂園)' 즉 선진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였던 은일(隱逸)의 공간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연을 벗삼아 평화로이 유유자적(悠悠自適)하던 사대부들의 여유로움을 본인은 작품연구에 실현해 보고자하였다. 제 2절에서는 동양의 것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띠는, 서양의 '파라다이스(paradise)'를 말하며 작품의 표현 기법

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 표현의 소재적인 부분에서 돌과 땅의 형상을 빌어 본인만의 상상의 공간을 표현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자한다.

제 Ⅴ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된 연구 주제를 표현함에 따른 의의를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본인은 이상적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염원함에 보다 발전적인 창작의 계기를 삼고자 한다.

주요어 : 인간관계, 현대인의 동기, 이상적 대인관계,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 유토피아, 돌, 땅

학번 : 2013 - 21195

目　　次

국문초록 ····· i
목　차 ····· v
도판목록 ····· vi

Ⅰ. 서 론 ····· 1

Ⅱ. 인간관계의 분석 ····· 9

1. 인간관계의 정의와 형태
2. 전통사회 속 인간관계
3. 현대사회로의 변화와 인간소외 현상

Ⅲ. 유토피아의 공간 속 인간관계 ····· 23

1. 인간관계와 동기
2. 이상적 인간관계 맺기

Ⅳ. 유토피아의 형상 표현 ····· 34

1. 동양의 자연관과 작품 표현
2. 서양의 파라다이스와 제작 기법 연구

Ⅴ. 결론 ····· 57

참 고 문 헌 ····· 59
작 품 도 판 ····· 61
영 문 초 록(Abstract) ····· 73

- 도 판 목 록 -

- 연구 작품 목록 -

[작품 1] Andante, 230 x 1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2] Lightening, 80 x 13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3] Own Village, 180 x 4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4] Personal Utopia, 30 x 3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5] 다종다양(多種多樣), 135 x 1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6] Secret Place, 90 x 117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7] Private Space, 170 x 17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8] 다종다양(多種多樣), 175 x 17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9] Utopia Ⅰ, 82 x 65cm, 캔버스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0] UtopiaⅡ, 82 x 65cm, 캔버스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1] L'Edera, 125 x 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2] Safety House, 155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3] Dystopia,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4] Personality Ⅰ, 72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5] PersonalityⅡ, 72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6] Adventure,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7] Character Ⅰ Ⅱ Ⅲ Ⅳ Ⅴ, 65 x 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창작의 동기와 사회적, 이론적 배경, 제작 과정과 재료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인은 2012 년부터 2015 년 현재까지 이상적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의 전통 장지 기법을 바탕으로 시작된 작업은 2014 년도 작업을 기점으로 표현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캔버스위에 혼합 재료와 기법의 사용으로 변화되어졌다. 작업의 주제표현 면에서는 기존의 돌과 땅의 형상 위에, 본인만의 상상력을 가미해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그려나가는 작업이다. 이상적인 모습의 사회를 꿈꾸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인 것이다. 무분별하게 발생되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 속 회의감을 느껴 시작하게 된 본인의 작업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이기는 하나 나름의 규칙과 법도를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나마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고대 utopia'[1]의 사상에 본인만의 감성을 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밖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를 꿈꾸며, 현 사회의 불편한 인간관계들의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적인 공간을 창조하고자 함이 본인 작품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맹자(孟子)』의 「'이루편(離婁編)'」[2] 상(上)을 보면 '역지즉개연(易

---

1 유토피아(Utopia)란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理想鄕)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마스 모어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없는(ou-)', '장소(toppos)'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인데, 이는 동시에 '좋은(eu-)', '장소'라는 뜻을 연상하게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유럽 사상에서 유토피아의 역사는 보통 플라톤의『국가』에 나오는 이상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1651)를 시초로 하여 근세 초기, 즉 16~17 세기에 유토피아 사상이 연이어 출현하였다 볼 수 있다.

2 <<맹자>>의 '이루 편에는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地卽皆然)'이라는 표현이 전해진다. 이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3]는 의미인데, 오늘날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라.' 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덕목으로 이어져 제시되어지기도 한다.
'진실한 벗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생 성공의 척도이며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얘기되어져 왔다. 돌탑이 쌓여지듯 인간관계 또한 한층 두터워 질수록 그 질이 향상되어지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급급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즉 거시적으로 보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러한 열망만을 사회화하기 위한 거대한 담론만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4]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에 인간 스스로는 점차 소외되어지고 그 심리적 고독감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어지는 인간관계 질의 퇴보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시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인간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탐구를 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 사회가 걸어 놓을 화두는 "관계론"임을 신영복의 저서 『나의 동양 고전 독법, 강의』는 말하고 있다. 또한 유럽 근대사의 구성 원리가 근본에 있어서 '존재론'[5]임에 비하여 동양의 사회 구성 원리는 '관계론'[6]이라는 주장을 그는 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禮人不答反基敬 愛人不親反基仁 治人不治反基智)"는 말도 나온다. 이 말은 즉 삶을 대하는 태도로: 자기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상대의 시각에서 헤아려보라는 삶의 지혜를 나타낸다.

3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와는 대립되는 의미로 쓰인다.

4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6, p.22

5 존재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실체성實體性을 부여하는 것.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개별적 존재는 부단히 자기를 강화해가는 운동 원리를 갖는데, 이는 자기증식自己憎殖을 운동 원리로 하는 자본 운동의 표현이다.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의 운동 원리가 관철되는 체계이다. 근대 사회의 사회론社會論이란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 인식을 전제한 다음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6, p.23-24 참조)

6 관계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승인한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關係網으로서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있다. 인간관계에 중점을 둔 본인의 작품과 '관계론'적 사회 구성 원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겨, 본인은 작품 연구 과정에서 위의 두 이론을 간략히 참조하고자 한다.

존재론적인 입장에 입각해 구성되어진 세계는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기에 자칫 자기중심적이고 결과론에만 입각한 사회의 모습을 띨 수 있다. 즉 개인과 집단 모두 자신들만의 순 이익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동하며,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최자 본인들만의 존재를 우선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 이다. 이는 본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유기적 관계망을 맺는 관계론 적 입장에 입각한 유토피아적 공간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에 두 개념을 크게 대조하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대인관계의 기술'[7]이란 용어가 쓰이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이'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다. 대인관계 기술은 사회적 생존의 기술인 동시에 생활 기술이라 평가되기도 한다.[8]그만큼 관계의 중요성은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인 것이다. 호와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9]

주목하기보다는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 관계론 적 구성 원리라 할 수 있다.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6, p.24 참조)

7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기술은 주체와 객체 모두가 사람이기에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인 관계 기술로는 사회적 민감성, 대안 제시, 원인 추론, 수단과 목적의 계열화, 결과 예측 능력 등이 있다.

8 특수 교육학 용어 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도서출판 하우

9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Gardner 가 1983 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마음의 틀』(Frames of mind)에서 제시한 지능이론이 '다중지능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기존의 지능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이란 각 개인이 특정 분야의 개념과 기능을 어떻게 배우고, 활용하며,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특정 분야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또는 '가치 있는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으로서 한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재능을 말한다. 다중지능이론 [多重知能理論, multiple intelligences theory] (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1. 10., 학지사)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원활한 대인관계(對人關係)의 척도는 무엇일지에 관한 의문을 갖게 될 것 이다. 이에 '대인관계의 매력'[10]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성향이나 행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긍정적 태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의 느낌 정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에 관한 매력 지수가 높이 평가되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상적 관계들이 성립되어지는데 여기서 '대인관계의 매력'이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언급되어지는 "대인관계"의 여러 문제들에 회의감을 느껴 그러한 문제점들을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본인은 작업의 주된 모티브로 삼았다. 작품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간관계에 관한 본인 스스로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며 현재까지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즉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피해 궁극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의 경지에 올라 이상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상적 관계들의 합으로 탄생되어지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표현하기에 앞서, '관계(關係)'에 관한 정의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는 장자의 <경(景)과 망량(罔兩)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예(天倪)로서 화(和)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에 맞는 일이자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라 장자(莊子)는 말한다.[11] 이는 경과 그 옅은 그림자인 망량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구절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장자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어떠한 주종 관계나 인과 관계 없이 그저 무 목적

---

10 대인관계의 매력은 보상(報償)을 제공하는 빈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뉴콤(Newcomb)의 이론, 인지적 조화와 부조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하이더(Heider)의 이론, 조건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조건화 이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회적 교환(社會的交換, social exchange)이론 등이 있다.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6. 29. 하우동설 참조)

11 정용선, 『장자 마음을 열어주는 위대한 우화』, 간장 출판사, 2011, p.143

성을 띄며 서로 연관 되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개별자 역시 연관 속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죽어간다 하며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항상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장자는 이를 통해 ‘나’라는 고정된 자의식을 줄여 나감과 동시에 각 개별자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들로부터 구성된 세계를 성찰, 평등하게 서로를 실현하며 상존해야한다는 삶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2] 제 Ⅲ장 ‘유토피아의 공간 속 인간관계 맺기’ 부분에서 구성원들이 상존하기 위해 취해야할 모습을 말하려한다.

앞서 언급한 유럽 근대 사회 구성의 원리로 존재론적 입장과 관계론적 입장을 위의 이야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항상 존재하나 각기 다른 그들의 목소리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같이 공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관계론에 입각해 개별자의 존재를 인정하되, 다양한 개성들 속 ‘공통된 합일점’을 찾아 모두가 행복이라는 평등한 감정 아래 평안한 삶을 영위해야한다는 말이다.[13] 여기서 제시된 공통된 합일점이 본인이 앞으로 이번 연구 논문을 진행해 나가며 살펴 볼 이상적 관계 맺기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해야할 점들일 것이다.

『논어(論語)』[14] 역시 “사회의 본질은 대인관계이다.”라 전한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15]라는 구절은 논어의 「학이편(學而篇)」 1 절에 전해진다. 이를 해석하자면 ‘도(道)와 뜻(志)을 같이하는 벗(友)이 멀리서 와 함께 어울리니 역시 즐겁지 않으냐.’이다. 공자는 도가 기본이 되는

12 기세춘, 『장자』, 바이스북 출판사, 2007

13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지나치게 관계론 적 입장에 입각해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보면 사회 속 관계 맺기가 도리어 존재의 목적이 될 수 도 있다.

14 논어는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서(四書)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공자와 그 제자와의 문답을 주로 하고, 공자의 발언과 행적, 그리고 고제(高弟)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되었다.

15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락호(아)

벗과의 우애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기쁨(樂)의 감정을 최고의 경지라 여긴 것이다. 또한 [與朋友 交 而不信乎][16]의 구절을 통해 '붕우와 사귐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 관계 맺기에 있어 항시 신(信)의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면, 보편적으로 각자 사회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집합으로 사회를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의 유기체 또는 건축적 구조로 사회를 규정하기도 하고, 생상 관계 - 정지 제도 - 문화 기제 - 소통 구조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회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이 모든 개념은 크게 제도(制度)와 인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두 범주 역시 인간관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 될 수 있다.[17] 즉 인간관계의 존재 자체가 사회 구성의 본질을 규정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 그 관계들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해 본인으로 하여 대인관계에 또 한 번 집중하게 하였다.

현대 사회 속 서로간의 정(情)을 잃고 각자의 삶을 부유 하게하기에만 앞선 현대인들의 모습에 본인은 대학 시절부터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태껏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 집단과 기관 등에 속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맺기 시작하였다. 본인을 기점으로 하는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존재하듯이, 어느 순간부터 넓어진 주변 인간 관계망에 심리적 혼란을 격기 시작하였다. 여러 관계들 속 진정한 마음을 나누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벗'의 관계는 과연 몇이나 될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

16 여붕우 교 이불신호(아)

17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출판사, 2006, p.145. 4 장 [논어], 인간관계론의 보고

다시 말해, 성공(成功)이라는 최상의 삶의 질의 세태 속 경쟁(競爭)은 더 이상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지만 지나친 경쟁의식 속 본인은 어느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인간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며 궁극의 경지로의 '이상적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의 정해진 답은 없으나 현세에서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인하여 절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 사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띄게 될지 상상해보기 시작해 보았다. 이에 현세에는 존재하지 않는 돌과 땅의 구조물의 형태에, 본인만의 상상력을 가미해 유토피아의 이상의 공간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진행해가게 된 것이며, 이번 연구 논문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함이다.

작업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좁게는 본인 주변의 인간 관계망의 탐구와 개선으로부터, 크게는 사회 전체의 융합과 안녕을 기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상적 사회 건설의 근본문제의 실현 방안으로 '이상적 인간관계 맺기'에 집중을 하였다. 이에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평온하게 공존하는 세계인 유토피아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작업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방법은 사전적, 인문학적, 심리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이에 바탕을 두어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 관련 자료는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 양쪽에 모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교하며 미래의 모습을 꿈꿔보는 작업 연구이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 인간관계의 분석'에서는 첫째, '인간관계의 정의와 그 형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전통사회 속 인간관계'는 뒤의 '현대사회로의 변화와 인간소외 현상'을 설명하는 데의 비교 기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Ⅲ장 유토피아의 공간 속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인간의 행동들은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관련해, 사람들의 '동기'와 '마

음’에 관해 논하였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상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취해야할 지를 장자와 노자의 가르침에 교훈을 얻어 설명하고자한다.

‘Ⅳ장 유토피아의 형상 표현’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을 비교하며 작품의 내용적인 부분은, 동양의 전통 산수사상을 인용하였음을 강조하려한다. 본인 작품을 동양의 전통 산수와 비교하며 과거 사대부들이 선호하였던 은일의 장소와 본인만의 유토피아 공간의 모습을 함께 기술하고자한다.

Ⅱ. 인간관계의 분석

1. 인간관계의 정의와 형태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영위하며, 이상향의 공간 실현의 작업을 진행하는 본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關係)'를 먼저 살펴보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의 '인간'이란 단어는 이 자체가 관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18] 사회적 존재로써의 인간은 관계들을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인간관계는 멀리 보아 삶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관계는 모든 사회 문제들의 기본이 됨을 시사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간들 사이의 내면적 소통이 이루어진 관계들을 이상적 인관관계라 본인은 생각하였고, 내면 소통의 요소로 '본(本)'을 강조하게 된다. 인간의 본질에 바탕을 둔 관계들만이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여러 입장들에 입각해 사회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과 같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며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 타인과 상호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19]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인간관계 맺기의 기본이자 시초인 것이다.

---

18 장현지, 「내면적 소통으로써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19 이태연, 『인간 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정, 2014, p.18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무한한 도움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난다. 성인과 아이라는 심적 강자와 약자의 입장 아래 부모님이 아이와 강력한 관계 맺기를 주도하고 있으나, 감정의 교류라는 관계의 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와 도움 없이는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에 “인간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 고대 그리스의 대표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446 ~ 358 B. C.)는 전한다. 그는 또한 ‘행복이라는 감정은 객관적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심리적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원만한 인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간은 사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발달시킬지를 배워나간다.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맺으며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길러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인간 스스로의 성장을 진정으로 돕는 관계이기도 한 만큼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생각이나 성격 및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도의 면에 있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적절히 수용해야만 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직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실생활에서 긍정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관계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며 내면의 단절로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현대 사회 속 관계들에 회의감을 느낀 본인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들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1 차적 인간관계, 2 차적 인간관계, 그리고 만남과 스침의 관계로의 분류가 가장 잘 알려진

관계 구분의 척도이다. 혈연적, 지연적 혹은 학연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친밀하고 대면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들을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1차적 인간관계'로 정의한다. 이에 반해 개인적인 매력, 직업적 이해관계, 그리고 가치관의 공유 등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 맺어지는 '2차적 인간관계'는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맺어진 관계라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자칫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단점인 수단적 인간관계의 특징을 띄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의 만남'이라 부르며 꾸밈없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 내면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만남과 스침의 관계'는 타인과의 교류와 조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존 포웰(J. Powell)이 주장한 '만남의 관계'는 두 참된 인간의 참된 융합이라 볼 수 있으며,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스침의 관계'는 '나의 가면과 너의 가면이 만나 무심한 듯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피상적 관계일 뿐이다.' 라는 시드니 자라드(Sydney M Jourard)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스침의 관계는 인간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고 지내다보니 역할을 수행하는 자아보다 역할 자체를 중시하게 된다는 자기 소외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만을 중시하다보니 사회적 인정만을 앞세우는 표면적 만남들만이 반복되어져, 내면적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속 인간의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을 발생시키는 부정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면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참된 만남의 관계가 즉 본인이 주장하는 '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 관계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20] 행복은 자기 혼자 찾거나 성취할 수 없기에 저서 『인간관계 심리학』의 저자 이태연은

20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청, 2014, p.17

‘사이(between)’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행복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관계들을 이루어 나가야할지, 또한 올바른 관계 형성은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 나가야한다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저자 이태연은 인간관계의 종류를 생존 수단으로서의 인간관계, 기본적 욕구로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화의 수단으로서 인간관계로 구분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양육 기간을 요하는 부모와 아기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사회 기본의 집단 속에서 인간이 생애 초기부터 사회적 존재임을 시사한다. 아기가 생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울음소리등과 같은 본능적 신호를 보내는 시기서부터 인간은 ‘생존 수단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욕구(need)란 인간이 생명체로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채워져야 하는 배고픔이나 성욕과 같은 생리학적 개념에서부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하는 심리학적 개념까지 포괄한다.[21]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 Maslow)[22]의 ‘욕구 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 발현을 위한 조건이 된다 말한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관계들을 ‘기본적 욕구로서 인간관계’라 한다.

---

21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도서출판 서해문집, 2014, p.31

22 미국의 심리학자. 부란다이스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를 지낸 바 있다. 처음에는 역동적 이상심리학·임상심리학을 연구하였으나 1954년「동기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를 발표한 이후, 건강인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 인간의 자아실현, 성장의 극한 등에 대하여 체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인 유기체 이론(有機體理論)을 전개하였다. 또한 매슬로(Maslow)는 행정학 특히 조직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는 1943년에 「심리학평론」(Psychological Review)을 통해 ‘동기이론’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욕구단계이론’이다. 그의 동기이론은 욕구이론 또는 성장이론의 효시로 흔히 보고 있다.
[Abraham H. Maslow]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Abraham H. Maslow 의 욕구 위계

또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확인 한 뒤 인간관계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23] 즉 관계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며,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소통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자신과 타인 사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사회화의 수단으로서의 인간관계'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만의 욕구를 충족해 나아가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그럼에도 사람들

23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청, 2014, p.19

이 가슴 한편 심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24]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관계 심리학자 슈미트와 서밋(Schumidt & Sermat, 1983)은 말한다. 그들이 제시한 인생의 동반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적 동반자, 낭만적 동반자, 사교적 동반자, 그리고 직업적 동반자가 그것이다. 가족적 동반자는 어휘 그대로 부모, 형제자매, 친척과 같은 혈연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며, 낭만적 동반자는 이성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의미한다.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관계를 사교적 동반자라하며, 일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직업적 동반자라 칭한다. 직업적 동반자들 사이에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협력을 해 이루어야할 목표가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24 이와쓰키 켄지 저, 민성원 역, 『인간관계의 지혜 88 가지』, 종문화사 출판사, 2015

2. 전통사회 속 인간관계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나던 변화를 1 - 2 년 사이의 단 기간에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지나친 사회의 급성장과 사람들 사이의 경쟁의식 속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본질마저도 떨어트리고 있다.[25] 자칫 모든 관계들이 인간 스스로의 성공과 목적 성취에만 급급해 일시적 관계 맺기로 변질이 될까하는 우려에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맺기 형태를 알아보기 이전, 전통사회 속 관계들의 특징과 그 속성을 짚고 넘어가고자한다.

한국 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의한 가족 간의 결속력이 중시되는 사회였다. 혈연, 지연 중심의 공동생활로 가족 중심의 농업 생활이 주된 형태였다. 전통 사회에서의 이웃 간의 관계는 신뢰와 애정을 기본으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성격의 띄었으며 서로간의 믿음이 기반이 된 사회였다. 믿음 아래의 이해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쌓으며 굳건한 관계를 맺던 사회에서 그럼, 오늘날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의 결과를 낳은 피상적 인간관계 맺기로의 변화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한 것일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집단인 가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역할 변화가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예부터 집안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집안 내에서의 그 역할이 중시되어져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사회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는 점 점 높아졌고 그에 따른 가족 구성

25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청, 2014, p.26

원들끼리의 역할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는 변화되어졌으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그에 따른 실망감과 좌절감 역시 커졌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누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하지만 역할 변화와 소속감의 상실로, 가정이라는 가장 친근하며 편안한 사회 형태 내에서조차 현대 사회인들은 여러 갈등들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의 약화는 인간관계변화에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26]

이렇듯 사람들은 점차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짐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의 기준을 잃게 되었다. 이상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진 것이다. 경쟁 사회 속 인간은 감정보다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고,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의 질을 떨어트렸다. 그에 따른 외로움의 감정이 바로 오늘날 사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질 수 있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뚜렷한 사회 구조 형태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만이 팽배해졌다. 경쟁 속 물질적 풍요만이 성공한 삶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번져나가면서, 현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나친 경쟁 관계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쟁에서 패배했을 시의, 상대적 박탈감은 구성원들 간의 인간계 맺기를 감소시켰다. 결론적으로 사회 집단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 것이다.

26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서해문집 출판사, 2014, p. 295

3. 현대사회로의 변화와 인간소외 현상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그 전 세대와는 현저히 다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기술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발전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사회 속 패배는 퇴보되는 삶'이라는 의식은, 무엇이든지 재빠르게 행동하려는 생활 태도를 유발해 사회 속 여러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부정의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인간관계 역시 마음을 주고받는 진실 된 관계 형성 이전에, 서로의 목적의식을 채우려는 이기적 세태에 휩쓸려 그 본질이 퇴보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미성숙의 관계들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 본인은 이번 장을 통해 현대 사회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려한다. 뒤이어, 사회적 변화들의 영향으로 인간소외의 안타까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인간관계

1973 년 Daniel Bell[27]이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The Coming of Post - Industrial Society)』를 출간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현대 사회(Modern Society), 산업 사회(Industrial Society), 또

---

27 1919년 뉴욕 맨해튼에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벨은 뉴욕 시립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1939년 졸업 후 <뉴리더>, <포춘(Fortune)> 등의 잡지를 편집하며 언론인 및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1960년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시카고대학 교수를 거쳐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출판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은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하는 세계가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는 포스트 맑시즘을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1973년 저술한 <후기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를 통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지나고 '탈공업화 사회', 즉 정보·기술 및 과학의 가치가 높아지는 '정보사회'의 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벨은 이와 같은 정확한 예측으로 피터 드러커, 앨빈 토플러, 새뮤얼 헌팅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세계 석학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니엘 벨 [Daniel Bel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는 자본주의 사회(Capitalistic Society)등으로 불려왔던 현대의 사회 구조에 구조적 대 전환이 진행됨을 직감했다.[28]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 형성에도 그들은 마땅한 명칭을 붙이지 못해, 단순히 '후기' 또는 '탈(post -)'라는 접두어만을 붙여 '후기 산업사회'(Post - Industrial Society)등으로 명하였다.

1981 년도 학자 Alvin Toffler[29]는 사회 구조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사회 변동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제 3 의 물결' (The Third Wave), '거시 경향' (Megatrend), '불연속성의 시대'(Age of Discontinuity)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그 특징과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뚜렷한 명칭이 요구됨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사회학자 D. Bell 은 후기 산업 사회를 '지식 산업' (Knowledge Society)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Zbigniew Kazimierz Brzezinski 는 '기술전자 사회' (Technetronic Society)라 명하기도 하였다.

최근 학자들은 현대의 모습을 정의하는데 '정보 사회' (Information Society)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명칭이 사용은 정보화의 범위가 단순한 경제 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가치관, 개인의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현대 사회의 특징인 것이다.[30]

---

28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 학보 제 5 권 제 1 호, p112

29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저명한 미래 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디지털혁명, 정보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 기술적 특이성 등에 관한 저작으로 유명하다. 컨설팅회사 액센츄어는 토플러를 일컬어 "빌 게이츠와 피터 드러커에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지도자 3위"로 칭송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로 꼽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인민일보〉는 "현대 중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50인의 외국인"으로 그를 선정했다.
엘빈 토플러 [Alvin Toffler] (해외저자사전, 2014. 5., 교보문고)

30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 학보 제 5 권 제 1 호, p113

현대 사회는 이전보다 성장한 거대한 조직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개인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고 그 존재마저 미미해지고 있다. 경쟁 속, 사람들은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기에만 급급할 뿐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을 여유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관, 정치적 신념, 생활양식, 기호 그리고 취미 등이 다르다보니, 개인들 사이에서의 공통점은 적어져, 관계 맺음의 밀도가 낮아지고 여러 사회적 갈등들만이 유발되고 있다.[31] 본인이 대학에 들어와 넓은 범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회의감 역시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 타산적 행동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애정이 담긴 관계가 결핍되다보니 사회적으로 인간 본연의 진실 된 마음이 점차 가려지고 제한되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초래로 물질적 가치는 중요시되어졌고 사람들 간의 정신적 가치는 그와 대조되게 도태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접촉들은 각자의 '요구 충족'에 의한 만남으로만 여겨졌고,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끊어지기 쉬운 관계들로 여겨졌다. 즉 사회 구성원들을 물질적으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길 뿐 그들 사이에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사이의 만남이 상품의 교환과 거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다.

(2) 정보화 사회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on-line 상의 만남이 잦아져 사람들 간의 접촉의 정도는 높아졌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은 모두 피상적일뿐 내면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볼 수

31 김진숙, 『인간관계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07, p.10

는 없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요소이다. 다음 세대에 좀 더 발전된 사회상과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은 작업 진행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현대 사회 속성들 중 '정보화 사회'[32]에 집중해 보려 한다.

정보화 사회 조직은 인간중심의 조직과 물질 중심의 조직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인간의 두뇌 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한 기계화의 특성은 현대 사회 속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켜 감성보다는 합리적 이성이 주도하는 사회로 현대인들을 이끌었다.[33] 이에 정보 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는 노동적인 면에서 인간 대신 전자 체계가 고역의 업무를 대신해 인간 행위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낙관론적 시선이 있는 반면 사회를 경직화 시켜 현대인들의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 이라는 비관론적 시선도 존재한다.

정보화 사회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34] 그 첫째는 거리감의 소멸이다. 정보화는 공간적, 시간적, 인식 수준에서 거리감을 소멸시켰다. 글로벌화 되고 국제화된 오늘날의 사회 속 on-line 세상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조건의 관계들마저 간단한 기계의 조작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소통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들마저 교류가 가능해졌다. 실례로 비행기의 이동 편으로도 12 시간 이상이 걸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락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의 교류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전화 통화로의 발전, 그리고 e - mail 이라는 전자 통신의 획기적인 발달에도 그치지 않는다. Smart Phone 이라는 정보화 사회의 대표 산물로 인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게 사회는 급속도로 성장 변화하였다. 이러한

---

32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학보 제 5 권 제 1 호 참조
33 손장권, 「한국 사회학회」, 정보화 사회의 인간과 조직, 통신 학술 연구 과제, 1992
34 김성기외,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 정보화저널 제 4 권 제 2 호, 1997

발전은 단일 공동체 안 에서만의 관계 형성뿐만이 아니라 동시대적으로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맺기를 실현시켜주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관계 맺기에 부담이 덜어지다보니 인간관계 맺기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 것이다.

둘째,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의 운용 형태가 소프트화 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 속 하나의 영역이 더 이상 구분 화되지 않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되 여러 개념들이 혼재하는 퍼지(fuzzy)[35]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소프트화의 변화는 사회가 방향성을 띄고 정보화 발전되기 보다는 불확실하면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 증대의 상태를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정의 요소로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네트워크화이다. 기존의 대면 접촉을 피해 정보 사회 속 비접촉의 통신은 네트워크의 개념이 보편화된 시기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단일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효과 뒤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무책임적인 사회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염려의 시선 또한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의 공동체의 경우, 그 안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은 집단의 해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갈등과 대립의 결함을 통해 결속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녀야 할 인내와 갈등의 완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정보 사회 속 가상의 공동체에서는 위의 사회화 과정이 쉽게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36]

---

35 196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의 자데(Zedeh) 교수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인간의 말, 의미, 사고, 측정 등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매모호함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네이버 지식백과] 퍼지 [fuzzy]

36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학보 제 5 권 제 1 호, p. 127 - 128 인용

즉 본(本)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내면적 소통에 솔직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책임 의식을 상실한 부정의 관계들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연의 모습을 숨긴 관계들은 개인의 정서적 개입의 정도가 낮아 그 유대감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규범은 책임감 없는 윤리 의식으로 인해 가상공간 내에서는 아직 그 규범이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임시적이고 자율적인 최소한의 규범만 형성하고 있을 뿐 네트워크상의 예의를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 컴퓨터의 공간 안에서의 윤리 강령을 의미하는 (Code of Ethics)등 은 구체화 과정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자유로운 상태인 정보화 사회 속 가상현실은 아직까지는 CMC(Computer Media Communication)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오늘날 인간관계 맺기가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상현실에서의 인간 소외와 인간성의 타락의 확산을 막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관계 맺기에서 올 수 있는 인간적 공허함을 예방해야할 것이다. 간단한 접근으로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며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주장하는 행복이 기반이 되는 유토피아적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유되는 삶 속 느껴지는 긍정의 힘이 따듯함, 열정, 생명력 등을 발휘해 현대 사회 속 인간의 부조리한 문제들이 점차 없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Ⅲ. 유토피아 공간속 인간관계

1. 인간관계와 동기

인간은 각자의 본능에 의해 다양한 활동들을 영위하며 삶을 이어간다. 각기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한편으로는 조화를 이루며 공존을 한다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공동체 안에 정해진 규율과 법칙을 준수해도 사람들마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에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상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만이 본인이 꿈꾸는 유토피아적 세계로의 발돋움이 아닐까싶다.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기에 그 행동에 '다양성'을 띈다. 개별적 인격체를 지니며 태도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사람들마다의 '동기(motive, 動機)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선 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회 구조 속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집중을 해 관계를 정의하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시대적으로 세월이 흐름에 관계들의 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좀 더 깊이 접근하여 인간관계 이전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왜 다른지, 그를 유발하는 인간의 동기는 어떠한 특성을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우리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

의 대부분은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동기라고 한다. 동기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행동(動)을 유발하는 계기(機)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전통에서는 없던 개념으로 영어 motive[37]의 번역어에서 유래되었다.[38]
인간의 의식 아래 일어나는 동기는 사람이 스스로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동기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도 전에 행해지기에, 그 행동이 유발되는 환경을 이해해야 동기의 목적을 파악 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의미하는 동기를 일으키는 요소는 그럼 무엇일까. 동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무형의 '마음(心)'[39]에 해당한다. 영어로 mind는 중세 시대까지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 현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신 능력을 통칭한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비슷한 단어로 '정신(精神)'[40]이 있다. 조금 더 나아가 마음과 정신을 구별해보자면, 마음은 감정을 포함하는 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정신은 이성을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한다.[41]
유토피아적 공간을 염원하는 본인의 작업 방향에, 현세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해진 형태가 없는 무형의 공간을 상상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위의 정신적 측면의 사고 작용들이 작품에 나타난다 생각한다. 고로 마음(心), 기억(記憶), 정신(精神) 능력과 그 사고 방향에 관해 집중 탐구해보고자 한다.

---

37 motive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어졌다. 어원적으로 동기를 정의하자면 '인간의 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8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서해문집 출판사, 2014, p. 17

39 한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신체 활동이 아닌 모든 정신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心의 개념을 사용했다.

40 정신(精神)이란 단어는 일본 메이지유신 시대 이후 서양의 spirit이란 단어를 번역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1 마이클 S. 가자니가, 박인균 옮김, 『왜 인간인가?』, 추수밭, 2009, pp. 353 ~ 354

사람의 마음과 몸의 연계성을 정의하는 입장에는 크게 이원론(二元論)적 사고와 일원론적 사고가 있다. 이는 단연 인간에 한에서가 아닌 생명을 지닌 모든 동식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생명 현상의 기본인 마음과 몸을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분리해 사유하는 관점이 이원론적 사고방법이다. 생명체의 생명이 다하면 그 육체는 가루가 되어 없어지나 정신만은 영원하다는 이원론의 사고는 마음과 몸의 대립관계를 강조하면서 정신 활동을 우위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동양의 자연관에서 신(神)을 얻은 상태를 최고의 경지로 보는 입장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마음과 몸의 대립 구도는 서양 기독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시대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42] 는 신체가 비이성적이고 쾌락의 충동의 동기를 주는 반면, 마음은 이성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했다. 여기서 마음은 신체와는 완전 분리가 가능한 절대적 존재의 우의의 상태로 정의한 것이다.

반면, 일원론(一元論)적 사고방식은 마음을 신체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자의 '心'자가 심장의 형태를 본뜬 상형문자인 것을 보면 고대 중국인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심장과 동일하다는 사고는 유럽에서도 드러났다. 영어의 heart, 독일어의 herz, 프랑스어의 coeur 등이 모두 마음과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43]

고대 중국에서는 마음을 단순히 인식의 기능만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윤리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양심'을 지니고 있다 생각하였다. 맹자와 순자가 윤리적 행동의 주체로 마음을 연구하였다는 증거로 '성선설(性善

---

42 개별 정치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예외 없이 동의해야 할 자연법이 있는지와 같은 철학자 아퀴나스의 질문은 아직까지도 의견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퀴나스의 정치 철학은 우리에게 '신앙'과 '이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서영식 외 1 명, 「인문학과 법의 정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43 이정우, 『개념 - 뿌리들 1』, 산해 출판사, 2008, p.59

說)'[44]과 '성악설(性惡說)'[45]을 얘기 할 수 있다.

또한 송(宋)나라 시대의 주자(朱子)는 마음을 '성(性)'과 '정(情)'으로 구분 지었다.[46] 그는 온 우주는 법칙과 질서의 '이(理)'와, 어떠한 현상 작용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기(氣)'로 이루어져있다 전한다.

사람의 육신 역시 이러한 '기'의 운동 능력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다 주자는 생각했다. 인간의 정신적 기능에는 마음의 움직임 또한 포함되는데, 그 움직임을 '정(情)'이라 칭했다. 주자에 따르면 인간의 정은 인위적인 습득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 본연의 마음가짐이라 한다. 즉 다시 말해 자연에는 정의되어 질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이 존재 하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설명되어 질 수 없는 본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 법칙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성(性)'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은 그 자체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으며 항상 구체적인 마음의 움직임인 정을 통해 나타난다."한다.[47] 마음의 움직임인 정을 통해 사람은 윤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정에도 나름의 법칙이 존재하며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이 즉 다른 말로는 인간의 '성품(性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본인은 생각해본다. 정을 근본으로 성이 드러나며, 성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의 특징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개성(個性)'이 바로 그 특징들일 것이다.

정이 가득한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은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

---

44 맹자(孟子)가 주장한 중국철학의 전통적 주제인 성론(性論). 사람의 본성은 선(善)이라는 학설이다. 성론을 인간의 본질로서의 인성(人性)에 대하여 사회적·도덕적인 품성이나 의학적·생리학적인 성향을 선악(善惡)·지우(知愚)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

45 고대 중국의 유학자 순자(荀子)가 주창한 학설로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사상.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적(感性的)인 욕망에 주목하고, 그것을 방임해 두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쌓아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46 미조구치 유조 외,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책과함께 출판사, 2011, pp. 158 ~ 173

47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서해문집 출판사, 2014, p. 23

讓), 시비(是非)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48] 딱하고 가여운 마음의 측은, 부끄러워하며 미워하는 마음의 수오, 자신에게 이로운 일들을 겸손하게 응하지 않거나 받지 아니함의 사양,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의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의 시비가 그 의미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법칙화하여 유교 윤리의 중심이 된 덕이 바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인 것이다. 이는 맹자가 훗날 인간의 본성이라 하며 제시한 4덕이 기도하다. 이렇듯 위의 네 가지 기준에 입각해 인간의 행동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가짐이 인간의 동기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동기 부여가 된 인간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들을 맺을지 와 연관해, 마음과 동기에 관해 알아보았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에 의해 나타난 동기는 인지활동의 과정을 거쳐 현대사회 속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나타나다. 그렇다면 동기의 원천인 감정과 욕구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감정을 의미하는 emotion이라는 단어는 motive와 같은 어원인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된 만큼 동기는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욕구 역시 인간이 생명체로서 요구되어지던 생리학적 욕구[49]에서 그치지 않고, 동기 이론가들은 심리적 차원까지 확장을 시켜 '심리학적 욕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50]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간은 더 이상 욕구 충족을 위해 감정이 앞서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스스로의 태도에 가치를 부여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사람들의 '인지활동'이라한다.

---

48 최재목, 「심心」, 21 세기 동양철학자은이들, 『21 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5, pp.159 ~166

49 인간이 생명체로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채워져야 하는 배고픔이나 성욕과 같은 개념

50 Johnmarshall Reeve, 정봉교 외 옮김, 『동기와 정서의 이해(제 5 판)』, 박학사 출판사, 2011, pp. 131 ~135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욕구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현명한 인지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상적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최상의 공간인 유토피아의 현실화란 그리 멀지 않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사회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며 인간관계의 소통 부재와 단절로 인한 폐해는 왜 발생되어지는 걸까. 사람들의 미숙한 인간관계 맺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이상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진시기 학자들은 어떠한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할 태도는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 서술 해보려한다.

2. 이상적 인간관계 맺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가지 않는 선을 지키며 사회의 정해진 규범과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의되어 질 모범적 사회 구성원의 모습일 것이다. 개개인의 완성된 모습이 이러하다면, 조화의 이상적 세계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할지 이번 장을 통해 선진 시기 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한다.

중국의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에는 '욕(慾)'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었는데, 공자와 맹자는 욕을 윤리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51] 그것이 생리학적이던 심리학적인 것이던 인간은 스스로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채우려하는 행위 유발의 마음가짐을 '동기'라고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즉 모든 '욕구'라는 심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心)의 상태인 것이며, 크게 보아 인간관계를 맺어나아가는 인격체로서의 개인별 '인간성(人間性)'을 좌지우지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의 출발점인 것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맹자(孟子)는 전통적인 윤리관인 '절욕론(節慾論)'을 제시한 바 있다.[52]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의 절욕 론을 맹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의 이런 절욕 론의 사상은, 노장(老莊)의 '무욕(無慾)'과 연계지어 욕구로부터 해방된 자아의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태도만이 깨끗한 인간관계 맺기의 준비된 자세라 말하고 있다.

---

51 몽배원, 홍원식, 황지원, 이기훈, 이상호 옮김, 『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출판사, 2008, p.622

52 서종호, 『유학의 욕망론과 인간해석』, 한국학술정보, 2008, p. 20

한편 순자(筍子) 또한,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관능적, 물질적, 정치적인 '욕'을 지니고 있다.'전한다.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충족의 투쟁으로 국가나 사회 속에서 혼란이 있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악(惡)'의 개념을 빌어 인간의 욕구를 비판하였으며,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해 인간이 최소한의 선으로 욕을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으로 성인(聖人)이 제시한 '예(禮)'의 이념과 '분(分)'의 사회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화려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온갖 음악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만들며, 갖가지 음식을 내놓으면 사람의 혀가 마비되고 만다. 치달리며 사냥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발광하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을 어긋나게 한다." 노자(老子)가 제시한 욕에 현혹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구절이다. 그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원인을 사람들의 지나친 욕에서 찾았으며, 그 해결책으로 욕심을 적게 부리라는 의미의 '과욕(寡慾)'을 제시하고 있다.

송나라 시대의 주자(朱子)는 욕이야말로 유교 윤리사상의 핵심인 '이(理)'인 '인의예지'의 덕목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천지와 만물의 근본 이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본성을 의미한다면, '욕'이란 사물에 반응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의 의미한다.

여기서 '이와 욕은 모두 천리(天理)가 들어있다.'라 주자는 주장하며, 천리의 법칙으로 인간이 이와 욕을 갈망하는 자세는 유사하나 정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따르면 천하를 위해서 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역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사롭게 행동하는 것은 천리를 도리어 해하는 행동이다.'라 전한다.[53] 주자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사리

53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서해문집 출판사, 2014, p. 39

사욕에 빠져 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마다의 욕구와 그에 따른 삶의 취향은 매우 다양하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본능적 욕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사회 내에서 인간의 욕을 무조건적으로 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적 세계 건설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된 하나의 법칙으로 인간을 음질일 수 있는가도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개성의 다양성과 절제된 삶의 방향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공간, 이 두 가지 논제 사이의 절충안은 그럼 무엇일까.
개인의 '자율성(自律性)'을 존중하되 민주주의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치 방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상적(理想的)'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며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로 본인이 진행하는 작업 연구에서만큼은 본인이 생각하는 자율적인 개체의 모습들 안에 나름의 본인만의 규칙성을 내제한 공간 표출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인간이 본인들의 권리로 주장하는 '자율성'[54]이란 어떻게 정의되어지며,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느 기준선까지 용인되어져야 할까.

18 세기 유럽의 시민혁명[55]이후, 오늘날 '자유'의 의미는 과거보다 확대

---

54 자유를 의미하는 영어 freedom 과 liberty 는 오늘날 같은 뜻으로 사용되나, 그 어원만이 다를 뿐이다. Free 는 고대 독일어 frei 에서 나온 말로 당시에는 '사랑받는 beloved', '친구 friend', '평화 peace'의 의미로 쓰였던 것으로 보아 노예가 아닌 자유 신분의 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55 대 왕정기를 통하여 크게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 역사적 사건을 시민 혁명이라고 한다. 시민 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미국의 독립 혁명을 거쳐 프랑스 대혁명에서 완성되었다. 이 중 프랑스 혁명의 경우 봉건적 신분 제도와 토지 소유의 모순을 극복하고, 시민의 권리를 인권 선언에 명시하였으며, 혁명의 주요시기에 항상 민중 운동이 함께 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주요 이념은 세습 전제 군주제 타파, 시민에 의한 정부 권력의 형성과 운영이었으며, 시민 혁명의 성공으로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획득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고, 이후 유럽 사회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되어졌으며 그 권리가 강조되었다. 서양의 역사를 자유라는 틀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유는 인간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커다란 이념이자 인간행동의 동기로 작용되어져 온 것이다.[56] 자유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삼으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이기도하다.

고대 중국 문헌에서도 자유(自由)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다. 장자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상태를 죽음에 비유하였는데, 그는 '무릇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 죽는다.'라는 구절은 외물(外物)에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 참된 자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함과 같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한낱 외물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57]

그러나 사회적 구속이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며 행복이라는 감정을 충만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상태는, 자신만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 역시 동반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이니만큼,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지시나 충고일지라도 상대방의 자율적 욕구를 침해한다면 그 사람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인간관계 맺기의 극단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반응하는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주도적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준법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상대방을 삶의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통제나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권유와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58] 그러다보면 인간의 본성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권을 내세우면서

---

56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 서해문집 출판사, 2014, p. 82
57 김백현, 『중국 철학사상』, 차이나하우스 출판사, 2006, p. 72
58 신득렬, 『Isaiah Berlin 의 자유론』, 교육철학 출판사, 1997, pp. 165 ~ 185

도 어느 정도의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타율적 지배 의식을 원하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율적 지배란 공존하는 사회속의 법칙과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없기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의 불안을 느낀다. 자신의 선택이 자칫 가져올 수도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작용하기에, 결과가 불확실한 선택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타율성을 수용하게 되는 심리적 원리인 것이다.

때로는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타율성을 수용해 삶을 단순화시킬 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다. 유토피아 추구 역시, 자율적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본인만의 법칙을 작품 안에 그려 넣는 방식으로 현재 작업 연구를 진행 중이다.

Ⅳ. 유토피아의 형상 표현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구분지어 독자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 여겨왔다. 유교와 도교의 유가, 도가 사상 아래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 스스로를 하나의 완전체라 생각해왔다.

인간과 만물의 공생을 강조하며 인(仁)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교의 자연관은,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의 체계를 갖춘 절대적 존재라 여긴 도교의 자연관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인간이 절대 지배자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해왔다.

이는 서양의 사상이 모두 그러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상[59]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론[60]등이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인 자연 지배 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동양과 서양의 구분 없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이던 그 구성원들은 궁극의 이상적 공간을 갈망하고 있음을 말하고자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주장의 작업들을 토대로 본인은 선진 시대의 자연관에 관련 크게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에 대해 그 선행 연구와 앞선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되새겨보려 한다.

---

59 합리주의적 자연관은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를 주체와 객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것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신적 존재인 인간을 주체로 보고 있는 사상이다. 이에 반해 자연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객체로 두고 있는데,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60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적인 것일수록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하위의 모든 것들은 상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식물은 동물보다 덜 의식적인 것으로서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즉 사회는 피라미드적 구조의 모습을 띄고 있다 주장한다.

1. 동양의 자연관과 작품 표현

동양의 자연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선진 시기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예술론과 자연론을 짚고 넘어가야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서부터 시작된 공자(孔子)의 예술 사상은 문화와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대동(大同)사회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인 유교(儒敎) 사상[61]을 본인은 먼저 풀어나가고자 한다.

공자는 모든 사상의 기초로 인(仁)[62]을 제시한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정신적 자율성을 추구한 인본주의적 사상은 인을 바탕으로 군자계층간의 예(禮)를 지킬 것을 제시한다. 여기서 예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 윤리 규범을 지칭한다. 유가에서는 예를 매우 중요시하여 <시경(詩經)[63]>에는 '사람이면서 예가 없다니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人而無禮胡不遄死)' 라고 하였고 심지어 예로써 짐승과 인간의 구분 기준을 삼았다.[64] 즉 인은 예의 내용이며 예는 인의 형식인 것이다. 즉 회사후소(繪事後素)의 그림은 먼저 바탕을 칠한 후 채색을 한다는 의미와 상통하며 사람은 좋은 바탕을 갖춘 뒤 문식(文飾)을 더해야함을 비유한다.[65]

또한 공자는 인(仁)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사람(人)다운 사람이라 하

---

61 공교(孔敎) ·공자교(孔子敎)라고도 한다. 인(仁)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이념으로 삼고,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62 인(仁)에 대한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克己復禮)' 곧,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라는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孝悌)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김지수,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너울북 출판사, 2014

63 춘추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으로 약 305 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64 남희근 저, 송찬문 역, 『논어 강의』, 마하연 출판사, 2012

65 회사후소(繪事後素) 두산백과 검색 결과

며, 자신에게 성실하는 충(忠)의 자세와 타인에게도 성실하라는 서(恕)의 자세를 말한다. 하지만 공자는 온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충과서의 자세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인간 스스로의 자발성을 강조하며 '己所不欲 勿施於人'[66]을 논어(論語)를 통해 전하고 있다.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인 '대동 사회'를 꿈꾸며 그가 제시한 인과 예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모습은 그럼 어떨지 본인은 생각해보았다. 인간 스스로의 본질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에 좀 더 집중해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꿈꾸었던 본인과는 달리 공자는 '성인(成人)'을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로 삼았다.

논어 제 14편 「헌문(憲問)」을 보면 성인에 대한 질문과 공자의 답의 구절이 있다.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67] 위의 구절을 해석해보자면, '예와 악은 이전 덕목의 질(質)에 대한 문(文)의 역할. 온전한 인간은 도덕을 기반으로 예(藝), 예악(禮樂)을 갖출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를 통치하는 지배자로서 성인은 문화적 수준인 예와 악을 갖춘 후에야 비로소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짐을 말하는 구절이다. 여기서의 질은 인간으로서 본연으로 갖춰야할 지식, 용기 등을 말하며 문은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 등을 의미한다. 공자가 꿈꾸는 대동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성인이 갖춰야할 삶의 태도로 위의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68]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법칙과 규율(禮)을 따지기 전, 풍유를 즐기기(樂) 전에 자연과 역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詩)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66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란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으로『논어(論語)』「위령공편(衛靈公篇)」의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67 자로문성인, 자왈, 약장무중지지, 공작지불욕, 변장자지용, 염구지예, 문지이예악, 역가이위성인의.

68 흥어시 입어예 성어악. 인간의 감성의 풍부함은 <시경>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성립된다. 그리고 이 풍부한 정서는 다시 예, 즉 질서를 통해 통제되고 정서와 질서는 악에서 종합되고 완성되어진다.

또한 공자는 문질(文質)의 사상을 내세우며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文)은 문화와 교양을 의미하며, 도덕에 대한 형식을 말한다. 즉 통치 계층으로서 군자는 심미를 포함한 문화 교양인인 것이다. 질(質)은 사람에 내제된 고유의 윤리를 의미하며, 문질은 다시 말해 이상적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양과 미를 갖춘 모습이여야 함을 공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가 군자와 성인의 모습으로 문질만을 앞세우지는 않았다. 그가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군자로서의 모습은 문질빈빈(文質彬彬)의 태도이다.

논어의 「옹야(雍也)」를 통해 공자는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69]을 말하고 있다. 이는 바탕(내용)과 꾸밈(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하지 절대 한 가지가 앞서면 안 됨을 의미한다. 그 자세로 중용(中庸),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항상 일정한 모습을 말한다. 이는 후에 중화(中和)의 의미로 확대돼 중국 예술론에 있어 ‘다양성’을 통일을 강조하는 예술 사조로 발전하기도 한다.[70]

이렇듯 공자의 유가 사상은 논어를 통해 ‘성인’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이상적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인간이 취해야할 태도 등을 서술하고 있다. 본인은 사람들의 본질의 문제를 떠나 그들 사이의 관계 맺기에만 초점을 맞춰 유토피아적 이상의 공간을 꿈꿔왔었다. 공자의 이러한 입장들은 관계 맺기 이전에, 본인으로 하여 사람의 본질 파악 이라는 좀 더 근본에 집중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장자 중심의 도가 사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보았을까. 장자의 도가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질부터 집중해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자의 유가 사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유가가 지나치게 사람의 입장에 집중해 자연과 괴리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관점을

69 자왈, “질승문칙야, 문승질칙사. 문질빈빈연후군자.”
70 서복관, 『중국 예술 정신』, 동문선문예신서 출판사, 1990

도가에서는 보이고 있다. 인간과 자연 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지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상적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선진 시기의 두 사상 모두 본질의 문제를 인간이냐 자연이냐 어느 곳에 초점을 두었는지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경(道德經)』 38장을 보면, 인간의 가치를 너무 중시하다보니 자연의 중요성을 당연시해 오히려 간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노자의 입장을 볼 수 있다.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71]. 이 구절을 해석해보자면, '도(道)를 잃은 후에 덕(德)이 나오고, 덕을 잃은 후에 인(仁)이 나오며, 인을 잃은 후에 의(義)가 나오고, 의를 잃은 후에 예(禮)가 나온다.'이다. 여기서 '도'는 자연 전체의 규범과 법칙을 의미하고, '덕'은 본래의 내제된 속성으로 도덕적 훌륭함을 의미한다. '인'은 "나"라는 존재가 이기적 마음이 생기면 어질게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즉 자연을 잃은 후에 인간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궁극의 '예'를 찾아 자연을 더욱 파괴할 뿐임을 비판하고 있다. '인'과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가의 가르침에 자연은 원래 의도가 없으며 인간의 인위적 가치에 의해 자연과 인간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는 '예는 도의 허식'일뿐이라는 노자의 입장을 알 수 있다.[72]

도가는 인간의 인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며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을 맡겨야한다는 무위자연(無爲自然)[73]의 입장을 보인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호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유기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자연은 절대 지배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인간

71 고실도이후덕 실덕이후인, 실인이후의 실의이후예

72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출판사, 2001

73 말뜻은 인위적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을 가리키는데,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속세의 삶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의미한다.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2010. 9. 15, 서해문집

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인간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는 범 우주론적 이치를 배운다.' 강조한다.
또한 도가에서는 자연을 목적론적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도 간직하지 않은 무위(無爲)의 체계로 본다. 이 무위는 자연 세계에 아무런 질서나 법칙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연 세계에는 무목적의 질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이다. 목적이 없는 자연의 질서가 자연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질서임을 뜻한다. 이렇게 도가에서는 자연세계의 목적성을 부인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를 거부하였다.[74]

그렇다면 장자가 주장한 '도(道)'의 특성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현실을 절대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상적 관념 혹은 정신이 아님을 강조하며 비인격적임을 장자는 말한다.[75] 감각 기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나 모든 생명체나 물체에는 '도'가 내제되어있다 믿었다. 하나의 언어로 개념화 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인 주재자 역시 없음을 강조한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 없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無所不在)'의 최상의 상태로 '도'를 정의하였다. 그렇다 고해서 장자가 절대 '물(物)'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만물과의 어울림을 주장하였고 '자연이 나와 함께 생겨나고 만물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됨'의 [天地與我竝生, 而萬物也我爲一][76]를 <제물론(齊物論)>[77]을 통해 주장하였다.

공자가 앞서 '문질빈빈'의 태도를 제시하며 중용의 자세를 취해야함을 강조하였다면, 장자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의 자세를 성인이 갖춰야

---

74 『도가의 자연관』, 동양 고전, 차성섭
75 장자 저, 김학주 역, 『장자 - 절대적인 자유를 꿈꾸다』, 연암서가 출판사, 2010
76 천지여아병생, 인만물여아위일. [제물론]
77 장자의 내편(內篇) 7편 중의 제2편으로, 세상 모든 종류의 진위시비(眞僞是非)를 가리는 논쟁을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잡론(雜論)을 한 결같이 하나로 귀속시킴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자 사상의 전모를 엿볼 수 있다.
제물론 [齊物論] Basic 윤리 용어사전, 2001. 12. 20, (주) 신원문화사

할 기본 덕목으로 요구하였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감각 기관들의 감지 능력을 차단하고 특정한 정보만을 얻기보다는 우주 만물의 '기(氣)'를 마음을 텅 비운 상태로 깨끗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심재'로 보았다. 또한 앉은 자세로 사지와 감각을 내어버리고 '도'와 일치가 되는 궁극의 상태를 '좌망'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사지와 감각은 모든 형체와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듯 선진시기의 유가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보았을 때, 공자와 장자는 궁극적으로 '지인(至人)'의 자세로 '물화(物化)'를 이루며 '소요유(逍遙遊)'를 이룬 이상적 삶을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지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의미하는 '지인'은 덕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성인과 군자와 유사한 완성된 인간상을 의미한다. 비록 형상화되어진 '물'의 상태를 앞세우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만물과 동화되어 '도'를 체득해야함을 '물화'의 상태를 통해 강조한다. 이렇듯 현세의 유한성에서 탈피해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적 자유의 상태를 '소요유'라 하였는데 진정한 소요유의 자세를 즐길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이상적 삶이라 여겼다.

장자의 이러한 '소요유'의 정신적 자유해방의 상태는 훗날 위진 현학시대에 '원(遠)'의 관념으로 유사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원'의 상태란 범근(凡近)에 구애받지 않고 '허광방달(虛曠放達)'[78]한 곳에서 노니는 마음을 의미한다. '체원(體遠)'은 도가에서 말하는 '체도(體道)'와 유사한 의미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상의 의리(義理)를 지킴을 말한다.[79]

서복관의 저서 『중국 예술 정신』에 서술된 북송 시대 곽희(郭熙)[80]

---

78 비어있는, 공허한 공간에 이르다

79 서복관, 『중국 예술 정신』, 동문선문예신서 출판사, 1990

80 중국 북송시대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화가이자 화론가(1000~1090). 훗날 곽약허의 『도화견문지』에 따르면 곽희는 산수화가로서는 이성, 범관 이후에 고품이라 평가되어지며, 그의 몸은 늙었지만 필력은 절대 쇠하지 않았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의 ‘원’의 관념을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적인 유토피아 공간에 대입시켜 설명해 보고자한다.

곽희를 이해하기에 앞서, 곽사의 『임천고치서(林泉高致序)』[81]를 짚고 나아가야할 것이다. 임천고치에 따르면 ‘곽희는 도가의 배움을 쫓아 세속의 테두리를 넘어선 곳에서 놀아 마침내 예(禮)에 유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 현세의 모습을 화폭 안에 담는 경지가 제일이며 산수화법의 틀을 제시한 곽희마저 산수의 형질로 ‘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세속의 유한한 것을 접하다보면 그 속에서 이상향적인 무한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로부터 초월한 경지로 이상적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강조하는 ‘유토피아’라는 개념 자체가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기에 본인은 상상력에만 의존해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고 작업 진행을 해왔었다. 작업을 진행해 나아가며, 본인은 개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상상의 돌 또는 본인만의 돌, 땅만을 고집하다 전통 산수의 돌과 산의 형세를 작품 안에 담게 된 이유이다.

---

81 11세기 후반에 궁정화원(宮廷畵院)의 지도적 화가였던 곽희(郭熙)의 산수화에 관한 의견을 아들 사(思)가 편찬 ·증보하였다. 현존하는 원서(原書)는 산수훈(山水訓) ·화의(畵意) ·화결(畵訣) ·화격습유(畵格拾遺) ·화제(畵題)의 5편으로 되어 있으며, 산수화의 주지(主旨), 산수화가의 마음가짐, 자연연구의 방법, 그리고자 하는 풍경과 첨경물(添景物)의 선택, 화면구성의 방법, 산수화의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임천고치 [林泉高致]

[연구 작품 1] Andante, 230 x 1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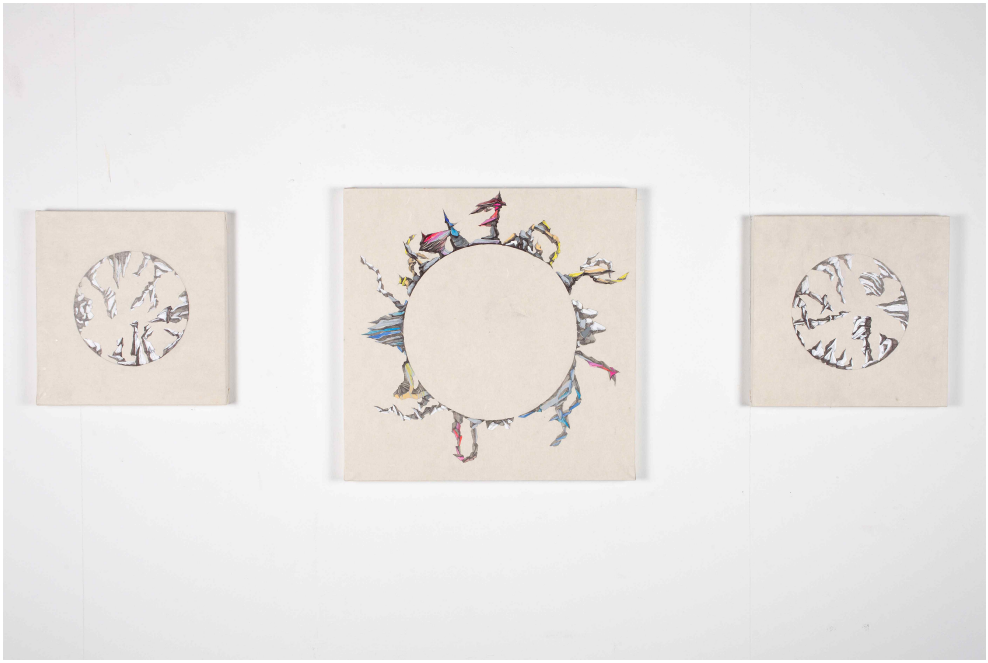
돌과 땅의 소재는 본인에게 이상의 공간을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의 요소로 사용되어졌다. 돌은 신앙 사상에서부터 장례 문화까지 우리의 여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존재해왔다. 돌(암석)은 예부터 마을의 풍흉을 예고하는 영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예로 두 마을 사이의 큰 돌이 정초에 어느 방향을 향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그 마을의 풍작과 풍어를 결정지었다 고한다. 또한, 암석은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심리와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심리가 복합되어 많은 화석 전설을 낳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 한국 사회의 토테미즘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신 성석으로 신앙되던 돌들도 그 유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암석들마다의 전설을 통해, 인간과 자연물인 바위가 생명적 연대감을 가졌다는 원시적 사유를 알 수 있다.

돌은 항상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계의 모든 물체들 중 태초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하였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간 곁에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 암석의 변절하지 않는 특성을 본인 작품에 연관 지어 소재 화하였다. 생명이 없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풍요로운 동적 가치나 힘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듯 한 기운을 받았다. 땅의 존재 역시 항상 인간의 발아래 있어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땅이라는 기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지도 관계를 맺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하나 그 가치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묵직한 존재인 돌과 땅을 본인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회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준 조력자라 생각하였다. 이에 본인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함에 그 형상 표현의 소재로 돌과 땅을 선택한 이유이다.

여타 다른 분야의 예술에서처럼 한국이나 중국 등의 전통 동양의 예술 범주 안에서 최고의 그림 등급은 '자연' 혹은 '신(伸)'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자연의 조화처럼 인위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기술과 같은 형사(形似)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신을 알아볼 수는 있되 형태의 묘미가 눈을 방해하지 않음이다.[82]
중국 북송 시대 이후 화가들은 화면 속의 산수가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제한된 화폭 안에 우주의 기운을 담기위해 화가들이 다양한 원근법을 한 화면 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산수화를 통해 개인적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않고 단지 한 번 가볼만한 곳의 표현이 아닌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가거(可居)'의 공간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누워서 풍유를 즐긴다는 '와유(臥遊)'의 자세로 가거의 공간을 희망했다는 사대부들의 생각이 본인이 핍박한 현실 속,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의 이상향을 꿈꾸는 자세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82 조민환, 『중국 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출판사, 1997



[연구 작품 3] Own Village, 180 x 4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본인만의 가거의 공간을 표현함에 있어, 지구의 원의 형태를 빌려 우주론적인 기운을 담으려했다. 변형된 원의 형태들은 표현의 다양성의 추구를 위해 도안하였고, 원의 안과 밖을 이루는 정해진 형태가 없는 여러 모양의 개체들은 본인의 상상력을 가미한 내세에 존재하지 않는 돌로 그려나갔다. 상상의 공간이니만큼 새로운 형상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역할로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은 개체들로 돌과 땅의 형상위에 배치해보았다.

[연구 작품 7] Private Space, 170 x 17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동양의 자연관을 살펴보는데 있어 앞서는 중국의 사상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당시 한국의 동양 자연관은 어떠했을지 살펴보려한다. 한국 화단에서의 이상적 공간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산수화는 예로부터 '천봉만학(千峰萬壑)'이나 '장강만리(長江萬里)'[83]와 같은 대자연의 모습을 일정한 화폭에 담아 기운(氣韻)이 생동하도록 표현해야하는 회화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다.[84] 단순히 자연

83 중국 산수화의 화제. 장강은 양자강 청해성 서남경으로부터 근원하여 장쑤성 동단에서 동지나에 유입하는 길이 5200km, 문자대로 일만 중국리나되는 아시아 제1의 강. 민강, 파강, 가릉강등의 지류를 합한 장대한 경관을 두루마리에 그렸다. 거연과 하규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고, 현대에는 장대천의 것(타이페이, 역사박물관)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검색 결과

의 사실적 묘사만이 아닌, 동양인들의 자연관을 대변하고 있다 여겨 산수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온 것이다.

본인은 현대 사회의 이상적 관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에 유토피아적 공간을 꿈꾸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선 시대의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현실 세계와 도원의 세계를 한 화폭 안에 대조적인 모습으로 담겼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이에 <몽유도원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 해보고자한다. 작품의 구성방식과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등에 대한 평가는 안휘준의 저서『한국 회화의 이해』의 구절들을 인용하고자함이다.

1447 년 4 월 20 일에 시작하여 3 일 만에 완성을 본 <몽유도원도>는 안견의 후원자인 안평대군이 꿈속을 거닌 도원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다. 화면의 좌측에는 현세의 모습을, 화면의 우측에는 도원의 모습을 배치해 지극히 사실적인 표현과 환상적인 표현을 함께 그려낸 점이 그 특징이다. 특히 이 작품은 상이한 시각의 구조를 띄며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했다. 좌측의 현실세계를 그림에는 평원과 고원의 시점을 사용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측의 무릉도원으로 시선이 이동함에 점점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몽환적 느낌의 심원의 시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구조를 표현하려한 본인의 작업들에 다양한 시점을 사용한 점과 아주 유사하며, 지나친 시점의 이동은 자칫 화면 자체의 통일성을 잃을 수 있기에 수직과 수평의 구조를 유지하려했던 점 역시 상통함을 볼 수 있다.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였을지라도 안견은 대자연이주는 질서를 간과하지는 않았다. 고요함을 강조하긴 했으나, 이는 소요(騷擾)[85]나 혼란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함일 뿐이었다.

---

84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출판사, 2004, p.33
85 떠들썩함이나 소란 또는 술렁거림을 의미

[연구 작품 11] L'Edera, 125 x 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는 여정을 그린 <몽유도원도>와 유사한 의미로 본인의 작품 <L'Edera>역시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험난한 길을 그렸다. 복잡한 실타래와 끝을 알 수 없는 선들의 엮임은 현대 사회 속 다양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풍자한 동시에, 궁극의 공간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였다. 실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화려한 색채는 유토피아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절대 고되지만은 않은 행복을 향한 긍정의 단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과정의 연속인 실을 여러 종류로 표현 함 역시, 유토피아로의 그 목표점은 하나이지만 도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말하고자하였다.

<몽유도원도>가 하늘에 떠있는 몽환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심원의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 작품 <Dystopia>역시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땅임을 강조하기위해 허공에 떠있는 듯 한 형상으로 구상하였다.

[연구 작품 13] Dystopia,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부유하는 땅 덩어리 위에 앞서 설명한 본인만의 상상의 돌들로 집합체의 형태를 구성해 복잡하며 미묘한 느낌의 관계들로 얽힌 유토피아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블록들이 쌓여 무한한 형상의 건축물 등을 만들 수 있듯이, 본인만의 상상의 돌은 다양한 집합으로 정의되어질 수 없는 긍정의 유토피아의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작품 속 화려한 색채는 다소 삐죽하고 날카로운 형상의 돌들에 대한 시각적 반감을 감소시키려 사용하였다. 행복을 강조하

며 그려나간 유토피아인데, 본인의 돌들은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완성의 상태인 본인의 유토피아를 표현하기 위해, 아직 지어지고 있는듯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뾰족한 형태의 돌들로 유토피아의 공간을 구성했다. 이에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점을 밝은 톤의 화려한 색채들이 중화시켜줄 수 있다 생각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연구 작품 16] Adventure,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광범위한 범위의 한국과 중국의 산수화풍을 다루며 크게는 동양의 자연관을 선진 시기에는 어떠한 시점으로 바라봤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양의 자연관이 인간과 자연은 온전한 조화의 관계를 이루는 공생의 관계로 여겨왔다는 점은 국가와 시대의 구별 없이 중요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연을 신(伸)이라 칭해왔다는 점에서 자연의 힘을 크게 보고 있었다는 점 역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2. 서양의 파라다이스와 제작 기법

동양의 자연관이 좀 더 자연주의적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두지 않고 그들 사이에 조화와 우호적 관계에 집중했다고 하면,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서양의 자연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스의 자연관, 근세의 자연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자연관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자연적 요소에는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현상들을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자연 현상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려들을 제지하였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였던 그리스인들의 자연관은 어찌 보면 전통 동양의 자연관과 매우 흡사하다 볼 수 있다.
자연은 본디 그리스어로 '태어나다'라는 뜻의 'physis'이다. 서양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이란 그 자체 안에 운동 변화의 원리를 가진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우주의 생물학적 양상으로 국한시켜 풀이하기 위해 동물이라는 도식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동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은 다양한 사물들이 그들의 특징적인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영역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른바 목적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았다.[86] 이는 자연 자체는 무목적성을 띄고 있으나, 어느 한쪽의 우익을 위해서가 아닌 절대적 평온의 자연 현상 유지를 위한 질서는 존재한다는 동양의 도가사상의 자연관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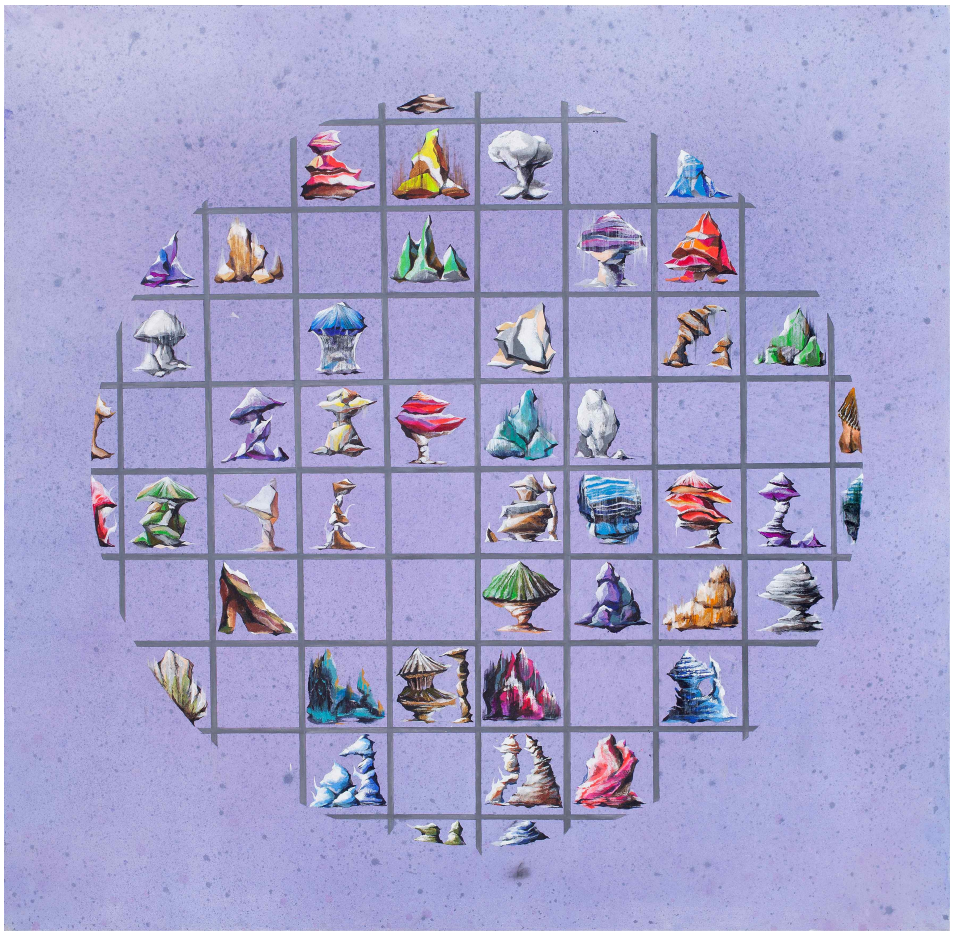
86 저 아리스토텔레스, 역 김진성, 『형이상학 』, 이제이북스 출판사, 2007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조직이라 보며, 물질을 구성하는 데에는 네 가지의 요소인 불, 신경, 물 그리고 토양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이 네 가지의 원소들은 서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 있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자연 철학 사상을 내세우기도 했다.

[연구 작품 14, 15] Personality Ⅰ,Ⅱ, 72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위의 두 작품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네 가지의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의미로 본인의 유토피아를 이루는데 필요한 속성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마치 서랍장 안에 나란히 배열된 듯한 구도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내면적 소통이 본이 되는 진정한 관계들로만 주변 관계망을 정돈하고 싶은 본인의 염원을 담은 작품이기도하다.



[연구 작품 7] Private Space, 170 x 17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근세의 자연관은 '대립적 자연관'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관찰자와 실험대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생각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습득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믿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 세계관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베이컨(F. Bacon, 1561 - 1626)이다. 그의 등장 이후 서양 철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자적 입장을 확립되어져갔다.

뒤 이어 등장한 데카르트(R. Descartes, 1596 - 1650)는 자연의 세계가 유기체적 구성의 하나가 아닌,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며 수학적 계산을 통해 겉으로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은 철저한 계산을 통해 유지되어지기에 모든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신이나 무형의 정신적인 것에 남기지 말아야한다고 말한다. 즉 인간만이 모든 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자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 우위 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 이다. 그는 또한 세계는 정신과 물질 두 가지의 범주로만 구분되어진다고 보았고, 인간만이 영혼, 의지, 목적을 가진다고하였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만 보인다고 믿었고 자연에는 어떠한 신비적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과 인간 사이에 세운 경계는 인간 스스로 허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겨 자연 파괴등과 같은 극단의 행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자연을 인간의 정복 대상으로 본 베이컨의 철학을 뒷받침해 나타난 근대 계몽주의적 사상은 곧바로 자연 개발의 역사로 나타났다.[87] 이 같은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에서부터 대립을 하는 존재라 보았다. 곧 자연과 인간은 성질 자체가 너무 다르며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인간을 자연과 동떨어져 우월의 존재로 삼으며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 보며, 서양 철학에서 있어 '이원론적 자연관'을 탄생시켰다.

87 강영안, <서양(西洋)의 자연관(自然觀)>, 철학논총 4, 1988 년, pp. 158 - 166

[연구 작품 9] Utopia I , 65 x 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 여긴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에 위의 작품을 구성해보았다. 앞서 말한 지구의 둥근 형상으로 우주의 기원을 담되, 그 안에 유토피아의 사회 구성을 해보았다. 다만, 원 밖의 공간을 한 가지 색상으로 채색을 해 답답하면서도 빽빽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는 인간의 자연 지배의 탐욕을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를 비판하기 위한 표현적 장치이다. 하얀 색채의 원 안의 공간은 자기들만의 나름의 규칙을 이루며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과 대조되게 밖의 공간은 무의미하며 지배의식으로 가득 찬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화려한 색상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중세 시대에 들어 서양인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맞춰 모든 생활상들이 변화되어졌다.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변화되어졌는데, 더 이상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보지 않고 모든 현상의 창조자로서 신(伸)을 신성시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움직인 다기보다는 신의 구원 아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작품 1 0] Utopia Ⅱ, 65 x 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하지만 자연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직까지는 동물과 식물들의 자연적 존재의 지배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믿었다. 신에 의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주어졌다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신을 대신할 수 있고, 그 권한으로 자연을 정복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서양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동양의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서 자연은 자신이 가진 존엄성마저 인간에게 빼앗겼고 존중의 대상이 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규정지어졌다. 본인이 진행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의 작업들은 그래서인지 정신적인 면에서는 동양의 자연관과 좀 더 유사하다 볼 수 있다. 명칭적인 부분과 표현적인 부분에서 서양의 것을 많이 쓰고 있지만, 내용과 표현의 합일을 위해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을 적절히 수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본인은 2012 년도부터 2015 년도까지의 이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 표현을 주제로 작품 주제와 내용, 조형 특성과 제작과정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다양한 집단 속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적 회의감에서 시작한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상상이나마 본인만의 유토피아를 창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발전되어졌다. 긍정의 이상적 관계들에 대한 갈망은 본인 스스로의 태도에도 변화를 주었고, 더 나아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꿈꾸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정신적 풍요로움까지 더해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장자와 논어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과거 전통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 맺기는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 사회로의 변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변질된 인간관계의 본질 찾기에 의의를 두며 이상적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관계를 탐구하기 전, 인간의 동기와 마음을 돌아보며 인간 본연의 행동개선에 출발점을 두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온히 공존하는 이상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작업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은 어떠한 특성의 띠고 있는지를 서술하며 산수의 정신성에 주목하였고, 선진시기 동양에서 자연을 신성시하며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던 태도를 본받아 유토피아 건설의 작업 연구에 그 기운을 담아보려 하였다. 작품 표현 방법에서는 전통 동양의 장지 채색 기법에서 시작하여, 2014 년도 이후 작품에서부터는 서양의 캔버스위에 작업을 진행해 나아갔다. 이는 수묵의 기법에서 다양한 색채의 물감을 사용하게 된 변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변이된 부분이다.

본인은 이번 작업 연구 논문을 통해 학부 시절과 석사 시절의 작업을 크게 정리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본인의 상상 속에서나마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어 보았다는 점에서 작업의 의의를 두려한다. 앞으로도 이상적 관계들에 대한 열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글이 아닌 시각적 매개체로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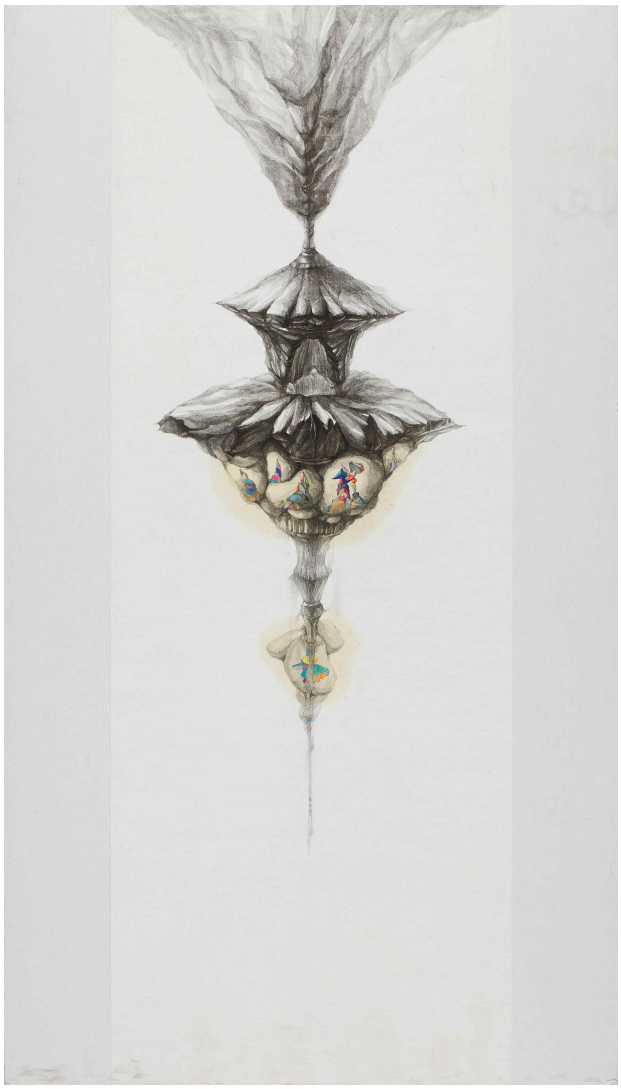
기세춘,『장자』, 바이스북 출판사, 2007
김진숙,『인간관계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07
김백현,『중국 철학사상』, 차이나하우스 출판사, 2006
남희근 저, 송찬문 역,『논어 강의』, 마하연 출판사, 2012
몽배원,홍원식,이기훈,이상호 옮김,『성리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8
서복관,『중국 예술 정신』, 동문선문예신서 출판사, 1990
신영복,『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2006
신득렬,『Isaiah Berlin 의 자유론』, 교육철학 출판사, 1997
서영식외 1 명,「인문학과 법의 정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이정우,『개념 - 뿌리들 1』, 산해 출판사, 2008
이태연,『인간 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정, 2014
안휘준,『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출판사, 2004
정용선,『장자 마음을 열어주는 위대한 우화』, 간장 출판사, 2011
조민환,『중국 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출판사, 1997
최진석,『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출판사, 2001
차성섭,『도가의 자연관』, 동양 고전
최현석,『인간의 모든 동기』, 도서출판 서해문집, 2014
최재목,「심心」, 21 세기 동양철학지은이들,『21 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5
Aristoteles 저, 역 김진성,『형이상학 』, 이제이북스 출판사, 2007
Johnmarshall Reeve, 정봉교 외 옮김,『동기와 정서의 이해 (제 5 판)』,
박학사 출판사, 2011
Michael S. 가자니가, 박인균 옮김,『왜 인간인가?』, 추수밭, 2009
이와쓰키 켄지 저, 민성원 역,『인간관계의 지혜 88 가지』,
종문화사 출판사, 2015
장자 저, 김학주 역,『장자 - 절대적인 자유를 꿈꾸다』,
연암서가 출판사, 2010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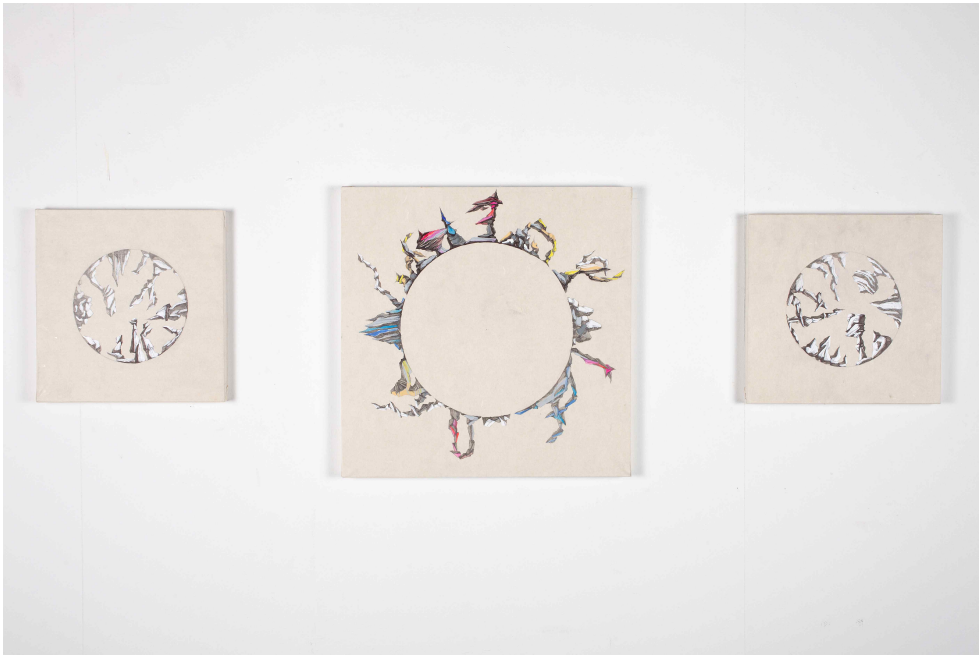
강영안, 「서양(西洋)의 자연관(自然觀)」, 철학논총 4, 1988 년
김성기외,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 정보화저널 제 4 권 제 2 호, 1997
손장권, 「한국 사회학회」, 정보화 사회의 인간과 조직, 통신 학술 연구 과제, 1992
서종호, 「유학의 욕망론과 인간해석」, 한국학술정보, 2008
장현지, 「내면적 소통으로써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 학보 제 5 권 제 1 호

연구 작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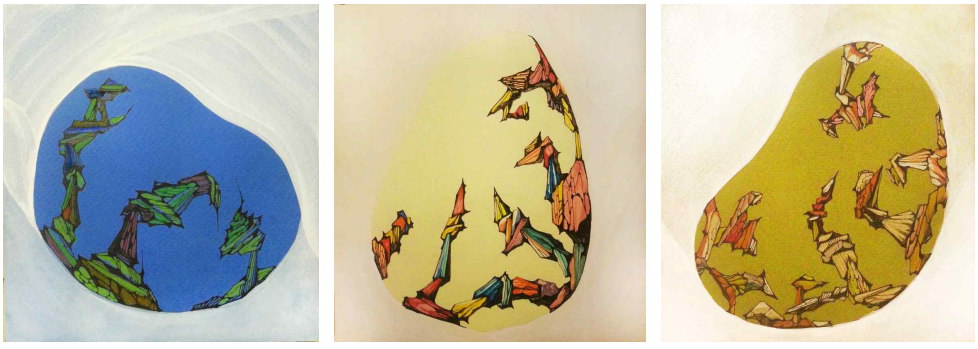
[작품 1] Andante, 230 x 1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2] Lightening, 80 x 13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3] Own Village, 180 x 4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4] Personal Utopia, 30 x 3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5] 다종다양(多種多樣), 135 x 1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6] Secret Place, 90 x 117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7] Private Space, 170 x 17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3.

[작품 8]다종다양(多種多樣), 175 x 17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2.

[작품 9] Utopia Ⅰ, 82 x 65cm, 캔버스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0] UtopiaⅡ, 82 x 65cm, 캔버스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1] L'Edera, 125 x 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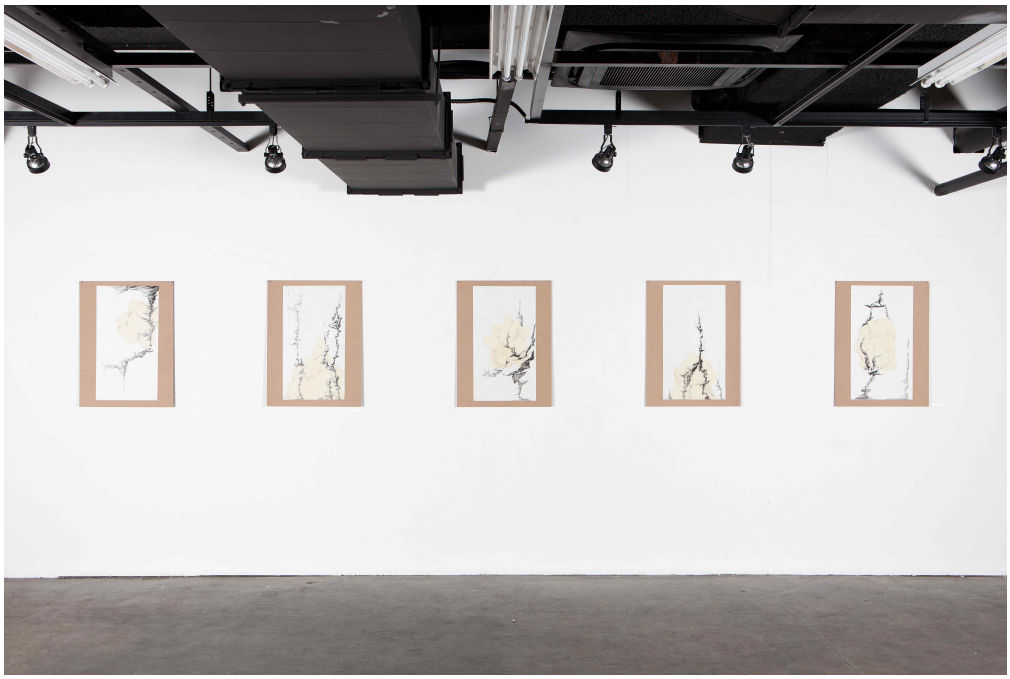
[작품 12] Safety House, 155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3] Dystopia,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4] Personality Ⅰ, 72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5] Personality Ⅱ, 72 x 9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6] Adventure, 120 x 150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작품 17] Character Ⅰ, Ⅱ, Ⅲ, Ⅳ, Ⅴ

65 x 85cm, 장지에 혼합기법, 2014.

ABSTRACT

Shape Representation of the Ideal Relationships

- Focusing on My own Works -

Lee Jisun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thesis is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author's own work from 2012 to 2015, thesis analyzes the creation of the artwork, the purpose of the chosen topic and its related theoretical basis with material technic used.

In the current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re defined by the social activities that they live through. The various forms of relationship is no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success for an individual. Our society is formed by many different individuals and characters, which can create a positive synergy or cause several negative issues to our society.

The power and freedom that wa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glottalization" also causes many interest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ultures. In addition, current society has to suffer through lack of internal communication from oneself and psychological loneliness, which can lead to emptiness of oneself.

Author has recognized the need to study the "social relationship" that sits deep inside oneself rather than making imaginations of rational space that

does not exist. Therefore, the current artwork chose the subject of "Consider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rough the current research, author has learn to accept the fact that today's social relationship is not individually separated fact but organized relationship. Also, by collaborating Eastern and Western culture, the author wanted to create a space where all can related to.

Based on the current topic, the author attempted to create the "Utopia" that all mankind endlessly wants to create not only physically but mentally as well.